

PEOPLE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화순군-완도군, 상생협력 실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화순군 농촌활력과 완도군 농업축산과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발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기부를 이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양 자체는 이번 상호기부로 서로의 지역을 이해하고 관광자원과 특산물 홍보에 의미를 더했으며, 교류와 협력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안진환 화순군 농촌활력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며 “완도군과의 상호기부가 제도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도군 관계자는 “두 지역이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어 뜻깊다”며 “기부를 통해 양 자체의 매력과 특산물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 기자 vjp335@gwangnam.co.kr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광주경영자총협회 이용섭 전 광주시장 초청 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힐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을 초청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주제로 제168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노동·일자리사업 지원 전문기관인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해 문인복 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도 참석했다.

이 전 시장은 강연에서 광주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역의 비전,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위한 3대 제언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광주형 일자리가 미래 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의 최우선 공약으로 AI 관련 인력양성, 기술, 연구개발 등에 대한 대대적 투자 지원 포함을 역설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서부경찰 농성파출소 '교통약자 사고예방' 주력

광주 서부경찰은 최근 농성파출소가 어르신 등 교통약자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농성파출소가 자체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고령 어르신들의 둘째상황 능력 미흡과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성파출소는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2개소에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아픔을 주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첨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진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박명구 농성파출소장은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활동과 홍보 등을 꾸준히 실시해 안전한 서구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오늘의 인연, 내일의 동행 되도록 함께 하자”

제13기 광남일보글로벌리더아카데미 ‘원우회의 밤’ 성료

북구 첨단2지구 메리인가든 연회장…원우 60여명 참석

제13기 광남일보글로벌리더아카데미(회장 전민수) 원우들의 친교의 밤 행사가 지난 17일 원우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2지구 메리인가든 연회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20일 첫 개강식을 가진 원우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뷔페식사를 시작으로 단체 기념촬영, 축하 공연 등 1·2부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원우회의 밤’을 축하하기 위해 조승우 제8기 회장, 조은철 제11기 회장, 제12기 임태근 회장 등 역대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해 행사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식전 행사로는 강현순아리스밸리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제13기 원우인 청강창극단 박세연 단장 제지들이 ‘건우와 직녀’, ‘배 뛰워라’를 열창하고, 임종재 원우가 초청한 노기준 가수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1부 행사는 내·외빈 소개와 이승배 광남아카데미 원장의 인사말, 조승우 제8기 동창회장의 축사, 전민수 회장과 원우 대표 강성선 1팀

장의 인사말이 진행됐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제13기 원우인 김윤아 전문 노래강사의 사회로 각 팀별 장기자랑과 노래자랑, 단체 레크리에이션이 펼쳐졌다.

장기자랑에서 원우들은 각자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각 팀별로 연습해온 춤동을 무대에서 선보였으며, 치열한 경쟁 결과 다수의 원우가 참석하고 복장과 장식으로 무대를 훈든 1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행사 중간에는 ‘100% 당첨’ 획수의 푸짐한 경품이 제공됐다. 집행부에서 준비한 선물도 많았지만, 광남일보를 비롯한 다수의 원우들이 선물 릴레이에 동참해 모든 원우들이 귀가 시 선물 3~4개씩 가지고 가는 기쁨을 만끽했다.

원우들은 이번 행사로 개강식 때 서먹했던 관계를 떨치고, 앞으로 자주 만나 광남일보 제13기 원우로서 ‘생생 친구’로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이승배 광남일보글로벌리더아카데미 원장은 “제13기 원우들이 서로 소통·화합하며 주도적



제13기 광남일보글로벌리더아카데미 원우 친교의 밤

2025. 4. 17.(목) 6시 메리인 가든

제13기 광남일보글로벌리더아카데미 원우회의 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으로 원우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에 희망을 봤다”며 “이번 원우회의 밤을 통해 각 팀별 모임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됐고, 앞으로 원팀으로 오늘의 ‘인연’이 내일의 ‘동행’이 되도록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전민수 회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고 물품 협찬과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준 원우와 임원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한전KDN, 글로벌 에너지ICT 플랫폼 기업 도약 다짐

창립 33주년 기념식…품질명장 첫 인증패 수여

한전KDN은 최근 나주 본사 빛가람홀에서 ‘창립 제3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글로벌 에너지 ICT 플랫폼 기업’ 도약을 다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직원 3000여명이 현장 참여와 실시간 중계로 함께한 대규모 행사로 진행됐으며 ‘33년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조직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기념식은 식전 팝파라 공연팀 ‘사과나무’의 무대로 시작해 공로상·모범직원상 표창, ‘KDN 품질명장’ 인증패 수여식으로 이어졌다.

특히 ‘KDN 품질명장’은 품질 역량과 기술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내 전문가에게 처음으로 수여된 인증으로 향후 조직 내 품질 문화 정착의 기틀이 될 전망이다.

또 전 직원 중 33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경품을 증정한 깜짝 추첨 이벤트는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한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한전KDN은 지난 33년간 국가 전력망의 디지털화를 이끌며 에너지 ICT 산업을 선도해왔다”며 “AI 기반 에너지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고, Digital ESG경영, 청렴운리 및 내부통제 강화,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열린 소통의 기업문화 구축이라는 5대 방향성 실현으로 강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해양에너지, 임직원 안전리더십 향상 교육

㈜해양에너지는 최근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주경영자총협회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됐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관리자 및 청년 친화사업 일환으로, 광주경총이 위탁 운영한다. 교육에는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광주대학교 교수)을 초청해 강의를 진행했다. 송 이사장은 안전관리 체제도, 안전 마인드, 리더십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이어나갔다. 특히, 관리자와 조직 구성원이 갖춰야 할 안전리더십의 핵심 요소들을 소개하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조직 문화 개선을 강조했다.

해양에너지는 이번 교육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 직원 대상의

안전마인드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 전반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에너지는 매월 4일을 ‘안전문화 DAY’로 지정해 팀별 안전개선활동, 사고사례 공유 및 토론, 위험 요소 발굴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무사고·무재해의 안전경영 실현을 위한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김철원 광주MBC 기자, 방송학회 저널리즘 논문상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관련 논문

이오현 전남대 교수와 공동 연구



김철원 광주MBC 기자와 이오현 전남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교수 쓴 ‘지역이 바라본 세월호 보도 참사—목포MBC 기자들의 세월호 참사 뉴스 생산의 경험과 회고를 중심으로’가 한국방송학회 김세은 저널리즘 논문상을 수상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의 원인 중 하나가 지역 언론과 중앙언론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였음을 밝힌 연구논문이다.

한국방송학회 방송저널리즘연구회(회장 한국외대 체영길 교수)가 최근 전북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 학술대회에서 ‘제5회 김세은 저널리즘 논문상’ 수상작으로 김철원 광주MBC 기자와 이오현 전남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교수의 저널리즘 논문상을 수상했다.

김세은 저널리즘 논문상이 지향하는 지역과 소외 계층과 약자를 위한 저널리즘, 사회적 진보와 공통성의 회복을 위한 저널리즘 실천에 부합하며 논문으로서 내용과 형식적 견고함을 갖추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세은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

명박, 박근혜 시절 공영언론 정상화를 위해 앞장선 학자로 해직언론인들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다경 기자 alsqslsd194@gwangnam.co.kr

해당 논문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MBC ‘전원구조’ 오보와 관련해 오보와 신속히 정정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지역 언론과 중앙언론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가 요인으로 작용

했다는 점을 꼽았다. 지역 재난 보도에 있어서 지역 언론의 중요성, 지역 언론과 중앙언론의 상호협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사위원들은 “김세은은 저널리즘 논문상이 지향하는 지역과 소외 계층과 약자를 위한 저널리즘, 사회적 진보와 공통성의 회복을 위한 저널리즘 실천에 부합하며 논문으로서 내용과 형식적 견고함을 갖추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세은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

명박, 박근혜 시절 공영언론 정상화를 위해 앞장선 학자로 해직언론인들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다경 기자 alsqslsd194@gwangnam.co.kr

한전-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산불 예방 캠페인



산불은 한순간, 북구는 한평생
유관기관 합동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2025. 4. 17.(목) 10시 30분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국립공원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으로 무등산 원호사 및 중심사 일대에서 봄철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한병준 본부장은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봄철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은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한바탕”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국립공원단 관계자는 무등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산림 보

호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양 기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생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위촉식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18일 서구청 나눔홀에서 열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수여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



‘우리의 힘으로 GREEN지구’ 19일 광주시청 일원에서 열린 제55주년 지구의 날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어린이자원순환장터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